

東洋哲學科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金 東 洙

(成均館大 東洋哲學科)

1. 머리말

얼마 전에 철학(이하 철학은 서양철학을 지칭함)을 전공한 사람이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지만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속에 철학과는 점점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학과로 되어가고 있다. 하물며 동양철학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졸업생의 취업지도 과정에서 본과 출신의 졸업생을 원하는 기업체 수가 거의 없다는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1983년 『철학』誌에 교육부가 “선진각국의 교육추세에 부응하고 고교교육의 전인교육화를 유도하기 위해 고교 자유 선택과목에 철학, 논리학 등 철학계 과목을 포함시켜 학교 재량에 따라 가르칠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한 이후 ‘고등학교에 있어서 철학교육’이라는 제목 하에 많은 세미나가 특집으로 실려 토론되었지만, 현재는 각 고등학교의 철학교육이 입시에 밀려 그 취지가 상실되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독서계에는 중국문화가 소개되면서 한의학 및 동양철학에 관한 서적들이 유행하고 있다. 공자, 장자, 노

자 등과 같이 이미 잘 알려진 중국의 유명한 인물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사서와 같은 고전들도 일반 독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야기 형식으로 출판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기공체조가 건강에 좋다더라.”가 회자되고 어느 철학자의 ‘기철학’이 발표되어 氣에 관한 논의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각 출판사마다 제목에 ‘氣’자가 들어가는 책을 잡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 다른 한편, 점술·역술이 과학의 이름을 빌려 주간·월간지 지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이러한 것이 곧 동양철학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상당기간 동양철학이라는 이름이 줄곧 이들에 의해 사용되어 왔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지금도 세인에게 동양철학과 출신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사주, 관상을 볼 줄 아느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모든 면들을 살펴볼 때 현재 철학교육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 때문에 서울대의 심재룡 교수는 앞서 “철학과의 문제점과 개선방향”¹⁾에서 철학교육 문제 해결 방안으로 철학교육을 크게 철학 전문가 교육과 철학적 생활인 교육으로 나눌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본 동양철학과도

1) 『대학교육』 동권 44 호 참조.

위의 문제점을 늘 느끼고 있던 차에 이러한 주제의 원고 청탁을 받아 이 기회에 심도 있게 연구를 진행하려 했으나 동양철학이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철학과의 교육과정에 편입되어 있고, 단지 3개 대학에만 동양철학과가 개설되어 있어 연구 자료의 양이 부족한 데다가 선행연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다. 따라서 이 글이 필자가 동양철학과에 몸담고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을 피력했기 때문에 괜히 관심있는 분들의 눈만 어지럽히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2. 教育目標

동양철학과는 우리의 강고한 민족 정신을 바탕으로 아시아의 여러 민족이 사유하고 발전시켜 왔던 다양한 철학적 전통에 대한 합리적이고도 과학적인 탐구를 통하여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천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려는 데 그 교육의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양철학과의 교육목표에는 보편학으로서 철학이 가지는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과학적 탐구를 목표로 하는 것과, 동시에 동양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발현된 사상의 영역을 다룬다는 점에서 특수분과로서 가지는 교육목표가 있다. 좀더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普遍學으로서의 철학교육의 목표

이 목표는 일반 철학교육이 지향하는 목표와 일치하는 것이므로 몇몇 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는 데 그치겠다. 옥스포드대학의 John Wilson 교수는 ① 비판적 사고의 교육, ② 형식 논리학의 교육, ③ 개념분석의 교육, ④ 이데올로기 교육, ⑤ 사회학적 교육, ⑥ 철학사 교육, ⑦ 인생관 교육으로 보고 있다. 앞서 심재룡 교수는 ① 논리적·비판적·합리적·과학적·주체적 사고능력의 함양, ② 전체적·포괄적·조감적 지식체계의 확립, ③ 올바른 가치관의 정립, ④ 철학적 창조력과 응용력의 개발을 철학교육의 목표로 제시하면서 특히 4번 항목을 철학과 출신학생의 취업 가능성을 높여 주는 간접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며, 철학을 부전공한 일반

학과 학생들이 자신들의 전공 분야에서 사회를 위해 질적으로 더욱 바람직한 기여를 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2) 철학의 特殊分科로서의 동양철학 교육의 목표

이 분야는 본 과 교육과정에서 중심이 되는 것으로 다음 몇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첫째, 마르크스가 포이에르바하에 관한 테제에서 “철학자는 세계를 해석하는 데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세계를 변혁하고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발표하여 철학자의 사명에 새로운 지평을 열었는데 동양철학에서는 고대부터 지식과 실천을 분리하여 파악하지 않았다(知行合一). 그래서 본 과는 학생들이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것과의 연관선상에서 자신들의 지식을 터득할 것을 교육의 목표로 삼는다. 둘째, F. Capra가 *The Tao of Physics*를 저술하여 현대세계에 생태학에 관한 관심을 고조시켰듯이 동양사상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더불어 他학문분과에 대해서도 폭 넓은 지식을 획득하여 세계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가능성을 갖도록 한다. 셋째, 동양철학이 탐구대상으로 삼는 것이 동양이므로 동양사상과 서구사상을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탐구하고 그 양자를 규정할 수 있는 근본적 요소를 찾아내어 우리의 가치관과 윤리관을 재조명해 보고 우리 나름의 발전모형을 찾아 보도록 한다.

지금까지 동양철학의 교육목표를 살펴보았다. 본 과는 이러한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전이나 원전수업을 제외하고 많은 교과목들이 토론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토론식 수업은 고등학교 과정까지 수년 동안 주입식 교육에 길들여진 학생들에게 부족한 발표력 향상을 가져오고 토론과정에서 서로 풍부한 내용을 교류할 수 있고 폭 넓은 지식 습득과 풍부한 사고력을 배양할 수 있으므로 철학을 대하는 데서 매물되기 쉬운 경직성을 탈피할 수 있는 결과를 낳는다. 본 과의 특징인 토론식 수업은 개설되는 과목당 수강인원이 20여 명 내외로 수업이 소규모로 이루어져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와 수업 집중력이

높아 바람직한 수업방법으로 평가되고 있다.

3. 教育課程의 현황 및 문제점

전국에 동양철학과라는 이름으로 學科가 개설되어 있는 학교는 3개 대학이다. 이들 중 2개 대학은 개설된 지 10년이 안 된다. 따라서 과가 개설된 지 수십 년이 넘은 학과에서도 “현재 자신들이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현실적 의미에 적합하고 합리적이며 과학적인가?”라는 물음에 설블리 대답하기를 꺼리는 데에, 현 교육과정을 통한 교육적 효과에 대해 속단할 수는 없지만 비교적 역사가 오랜 S대와 '85년에 신설된 A대를 비교하면서 교육과정을 살펴 보겠다.

〈표 1〉을 참고로 하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동양철학과가 탐구영역으로 삼는 바가 중국철학, 인도철학, 한국철학, 서양철학, 불교철학 그리고 동양철학 일반을 다루는 동학철학개론 등으로 서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대학 내에 동일계열 학과(철학과, 한국철학과 등)가 개설되어 있는 S대의 경우 한국철학, 서양철학에 대한 교과목들이 동일계열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은 A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게 개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S대의 경우 학과명은 동양철학파이지만 교육과정이 주로 중국철학에 편중되어 있고 동양철학의 또 하나의 커다란 줄기인 인도철학과 불교철학에 관한 교과목은 겨우 한 강좌씩 개설되어 있을 따름이다. 이렇게 볼 때 S대의 경우는 교육과정 면에서 볼 때 동양철학과라는 명칭보다 중국철학과라는 명칭이 더 어울릴 것이다. 한편, A대의 경우 대학 내에 인접학문을 다루는 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학생들에게 동양철학의 범주 내에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해 교육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균형있게 교과목을 개설했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 분야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학습이 이루어지기 힘들게 교과목이 편성되었다. S대와 A대의 교육과정을 비교하여 보면 하나의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딜레마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 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는 대학교육의

위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이다. 즉, 한 분야를 심층적으로 다루느냐 아니면 깊지는 않지만 폭 넓게 다루느냐 하는 것이다. 둘째는 첫째 문제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대학교육의 위상을 정의할 때 반드시 현재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고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유용한가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토대로 현실적으로 동양철학 전반에 걸쳐 적절한 강의가 부족하더라도 교과과정이 폭 넓으면서 심도있게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편성하여 지금은 당장 그것을 완전 소화 못하더라도 여건이 마련되면 당장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야 한다. 또다른 한편으로 교육제도상의 개혁을 통해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각 대학마다 동양철학의 여러 탐구 분야 가운데서 한 분야에 대해 중점적으로 교육과정을 배치하여 육성하도록 하고 동일계열 내지 인접 학문 사이에 교류수강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 제도를 실시하려면 동양철학과가 여러 대학에 개설되고 각 대학의 학문적 수준이 어느 정도 성숙되어야 함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또하나의 문제는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의 분류가 편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S대의 경우 전공필수 12과목 중 9개 과목이 중국철학에 지정되어 있어 다른 분야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학생들의 다양한 학문적 관심을 저해하는 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전공필수와 전공선택을 정할 때 편의주의적인 모습을 지양하고 합리적 원칙에 입각하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교과과정이 운영되는 과정상의 문제점을 알아보자. 여기서 가장 문제시되는 것은 모든 대학이 겪고 있는 교과목을 담당할 수 있는 교수의 부족일 것이다. 현재('92년 말까지) S대는 4명(중국철학전공 3, 사회철학전공 1), A대학은 5명(중국철학전공 3, 서양철학전공 1, 한국철학전공 1)으로 교과목에 비추어 볼 때 거의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러한 교수 정원의 절대부족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몇 가지만 살펴보자.

첫째, 교수의 입장에서는 한 교수가 학기마다

〈표 1〉 동양철학과의 교육과정

구 분	S 대	A 대
중국철학	중국철학입문* 중국고대철학사* 유교경전강독1*, 2* 중국중세철학사* 노자강독 신진철학특강 한당철학 제자선독* 중국근대철학사* 중국사회철학사* 중국윤리사상사 장자강독 중국근세철학사 목가철학특강 송명철학 중국현대철학사* 오경강독 노장철학 법가철학특강 청대철학특강 도교철학특강	중국철학사 1*, 2* 사서강의 노장철학* 중국불교철학* 오경강의 제자철학 송명철학 청대학술사상 중국철학특강 중국현대철학
한국철학	한국철학입문* 한국철학사특강 한국유학사 한국실학특강	한국철학의 제문제 한국철학사 1*, 2 한국성리학 1*, 2* 한국실학사상 한국불교철학 한국근대사상 한국철학특강
인도철학	인도철학사	인도철학사 1*, 2
서양철학	논리학특강* 인식론 현대철학입문 서양철학사 1, 2 철학연구방법론 현대철학사조	논리학 인식론* 서양고중세철학 서양철학원전강독 서양근세철학* 역사철학 형이상학 서양현대철학
기 타	동양철학개론* 불교철학특강	동양철학개론 불교철학개론

* 표는 전공필수

많은 과목을 맡아 수업부담이 과중하여 자신의 연구를 심화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다. 따라서 각 학교의 사정상 교수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교수 안식년제의 광범위한 실시가 시급하다. 둘째, 학생들도 교수 정원의 부족으로 배움에 커다란 지장을 받고 있다. 즉, 비전공자가 수업을 진행하여 강의의 질 및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또한 한 교수가 담당하는 몇 개의 과목은 과목의 명칭은 다르지만 실질적인 강의내용은 동일하여 학생들은 졸업할 때까지 동일한 수업을 몇 과목씩 이수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들의 대안으로서 해당 과목의 전공자인 강사를 대폭적으로 초빙하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다.

다음으로 교과과정을 따라 배우는 학생들이 겪는 문제점이 있다. 동양철학은 다른 학문과 마찬가지로 한문, 중국어, 일본어 등 여러 개의 어학을 필수적으로 익혀야 한다. 그런데 다른 어학과 다르게 한문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93년부터 적용되는 대학입시에 한문이 제 2외국어로 지정되어 다행이긴 하지만 중·고등학교에서부터 한문교육이 다른 외국어 과목과 같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위의 중국어와 일본어도 사실 쉬운 과목이 아니므로 교양필수에 편성하여 학생들이 정규 교육과정 속에서 어학을 공부하도록 지도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4. 問題點과 發展方向

위에서도 언급된 바처럼 동양철학과는 개설된 과가 적고 그 중 몇 과는 역사가 짧아 동양철학과 전반에 걸친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가 진행된 것이 없었다. 따라서 시급한 것은 이러한 주제를 놓고 대학 상호간에 교육학적 입장에서 많은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는 것이 선결 문제이다. 여기서는 동양철학과가 현재 겪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점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동양철학과의 문제점은 앞서 지적한 교수 확충과 이와 더불어 교수들이 연구활동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연구 조건을 확보하는 문제, 교육과정의 합리적 정비 등이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동양철학과는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도 되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머리말에서 학과에 대한 사회의 인식에 대해 언급했지만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사회 인식이 본 학과 출신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와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본 과에 기업체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취업추천서는 전무하다. 그뿐 아니라 기업체의 사원모집공고에서 모집대상으로 하는 학과도 철학과는 들어 있는 경우도 있으나 동양철학과는 제외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3학년 때부터 출신과를 따지지 않는 공채나 자격증 및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게 됨으로써 학과의 교육과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이것은 학생들의 자질문제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채 등을 통해 사회에 진출한 본 과 출신의 학생들이 자신의 역할을 충실하고 능력있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 이를 반증해 준다. 따라서 문제는 동양철학과에 대한 사회적 편견인 것이다. 현재 국제적으로 아시아의 경제력 부상이 관심 대상이 되고 있는데—이것을 학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 ‘유교 자본주의론’이다—본 과 교육과정의 목표를 충실하게 배운 학생들은 아시아의 여러 국가에 대한 다양한 소양들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들과 경제적 관계를 맺는 데 상당한 인재들이 될 것이다.

한편, 진로의 문제는 비단 학부 졸업생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본 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박사과정 및 수료·졸업생들도 대부분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국적으로 본 과가 개설된 대학이 적고 교수를 채용하는 경우가 적어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전임이 될 가능성을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강사로서 몇 개의 강의도 얻기 힘든 상태이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대학에 교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상과는 모순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 몇 가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교육과정의 현황에서 지적한 것처럼 전문강사를 상당수 채용하는 것이다. 들

째는 전문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학문의 발전·심화와 인력 수급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연구소 설립에 소요되는 財源이다. 여기서 관심을 끈 논쟁이 있는데 프랑스에서 벌어진 교육계와 경제계 사이의 논쟁이다.²⁾ “현 교육은 죽은 교육이고, 지나치게 아카데미하고 기업체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쉽게 구할 수 없다.”고 교육계를 비판한 것에 대해 교육계는 “교육은 길게 보면 국가 백년을 위한 것이지만, 가깝게는 기업이 요구하는 질 높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교육의 최대 수혜자는 1차적으로 기업이다. 그런데도 기업은 교육 투자에 인색했다.”고 반박하면서 벌어진 논쟁이다. 물론 양자 주장에 모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후자의 주장에 동감을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학재단이 대학에 투자하는 대학전입금은 아주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에서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을 대폭 늘려 대학의 교육여건의 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구소가 설립되어 기업이 요구하는 질 높은 노동력이 양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結 論

지금까지 동양철학과의 교육현황과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 보았는데 이것은 비단 본 과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요즘 논의되고 있는 문제 중에 세계적으로 공히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는 교육에 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미래학자인 피터 드러커가 그의 저서 *The Post Capitalist Society*에서 21세기는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사회라는 것이다.³⁾ 이 사회는 知識이 생산력과 생산관계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등장한다. 자유시장경제가 유지되면서도 자본과 토지, 노동 대신에 지식이 가장 강력한 생산수단이 되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되어야 한다는 것

2) 문화일보, “교육과 국가흥망”, '93. 2. 18일자 7면 참조.

3) 앞의 문화일보 참조.

이다. 만약 드러커의 주장대로 사회가 빈화된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만약 현재의 교육 환경 및 교육풍토 등의 개혁이 있지 않으면, 드러커가 예견한 사회에서 생존하기가 힘들 것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으로 중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경제적으로도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한편으로는 벌써 중국 상품

에 의해 상당 부분 피해를 보고 있는 현상도 나타난다. 따라서 중국을 주로 탐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동양철학과는 어느 때보다도 그 역할이 중요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실적 조건으로는 요구되는 역할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교육전반에 관한 개혁과 더불어 본 과에 대한 지원이 국가적·사회적으로 절실히 요구된다. ▣

< 投 稿 案 內 >

『大學教育』 제64호에 게재할 原稿를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1. 내 용 :

- ① 대학교육에 관련된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 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주제에 관한 논의, 각 학과의 교육과정이나 교수·학습 활동 등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논의, 외국의 연구동향 소개,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으로 다음 칼럼에 해당하는 글
- ② 해당 칼럼 :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교수담론」

2. 분 량 :

- ① 「논단」 「학과별 교육과제」 : 200자 원고지 45장 또는 55장(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실 경우 7장 또는 8장, 80칼럼에 줄 간격은 14(터블스페이스)로 하여 1장당 29행 기준)
- ② 「교수담론」 : 200자 원고지 20장 또는 25장(워드프로세서로 작성하실 경우, 3장 또는 3장 반)

3. 기 한 : 1993년 4월 10일

4. 고 료 : 200자 원고지 1장당 3,000원(채택된 원고에 한함)

5. 제출처 :

- ① 우) 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앞
- ② 전화 780-7942, 783-3891, 팩스 780-8311

6. 참고사항 :

- ① 제출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제출된 원고는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 ② 「논단」의 경우, 반드시 200자 내외의 요약문이나 발췌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③ 국한문을 혼용하되 한자를 제한하고 필요한 때에는 원어를 써 주십시오.
- ④ 필요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집필자와 협의하여 편집형식에 맞게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